고은 불교대하소설

66

또 하나가 나타나다

그동안 아귀계의 갖은 고통을 함두와 함께 감당한 불이는 정녕 하늘 속의 어떤 별무리 가운데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 시공(時空)을 뛰어넘은 우주 허공계의 어느 공간을 한없이 떠 돌아야 하는 미아(迷兒)라도 되어버린 것일까?

그것은 불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하늘 속의 이름 없는 정령(精靈)이 된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었다. 불이는 그렇게 형체가 아닌 것으로 하늘 속의 투명한 실재가 되고 있었다.

정작 그는 함두와의 하늘 속 이별을 훨씬 뒤에야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이별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나의 불덩어리로 합쳐져서 눈부신 빛을 뿜어대며 지하의 아귀계에서 폭발한 것 같은 그런 승천(昇天)으로 치솟았던 환희는 지금 정반대의 처지에서 온데간데 없었다.

과연 불이는 별무리와 별무리 사이의 성긴 우주 공간에서 어떤 별 하나를 만났다. 그 별은 너무나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다가 불이의 빛이 다가가자 갑자기 뚝 빛이 멎어버리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그 별의 의지에 의해서 빛을 꺼버린 것이 아니라 불이가 다가가는 것과 함께 그 별에 반사되는 불이 자신의 빛도 다했던 것이다.

우주의 여러 별들은 스스로 빛을 뿜어대는 뜨거운 별과 그런 별의 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 있다. 이를테면 발광체(發光體)와 반사체(反射體)가 그것이다. 그런데 반사체의 별이야말로 발광체로부터 받은 빛을 가장 아름답게 재생산함으로써 우주 속의 보배구슬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불이의 빛은 이제까지 그 스스로 타오르던 여진 때문에 수명이 다된 발광체였으나 그가 만난 별은 다른 발광체의 빛을 반사시키는 별이었던 것이다.

다만 그 별은 불이의 빛이 남긴 빛의 잔재를 가까스로 받아들여서 희미무례하게 그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가구려. 돌아가구려. 이곳은 곧 커다란 혼란이 시작될 것이오"라고 그 별이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것처럼 불이에게 간절히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여기 그대로 있고 나만 피하라는 것이오?"

"나는 이 혼란의 업(業)을 피해서는 안되지만… 보아하니 당신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멸망을 체험할 처지가 아니오. 당신은 사바세계로 내려가야 할 것이오… 제발 돌아가구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별의 표면에 박혀있던 아주 커다란 암석이 떨어져나오며 불이의 별을 내치는 것이었다.

아니 그 암석은 불이의 별에 늘어붙어서 불이를 오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일찌기 불이는 하늘로의 영문 모를 승천을 통해서 우주의 일부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았거니와 다시 그는 그 두려움을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그가 사바세계 한군데를 무연히 내려다보던 일도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아주 먼 거리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특수한 장치로 되어 있었던가.

"저기다!"

라고 그가 소리를 질렀다. 이미 불이의 몸에 늘어붙은 다른 별의 암석까지도 그 소리에 의해서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드는 것이었다.

"어디입니까?"

라고 그 암석이 물었다.

"저기다! 저기"

그리하여 불이의 별은 더이상 어떤 주저도 없이 쏜살처럼 저 아래의 사바세계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불이의 별을 내달리게 하는지 몰랐다. 불이는 달리고 달려갔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일은 출발과 목적지에의 도달 뿐 아니라 그 사이의 이동 자체가 가장 신성한 일인지도 모른다. 불이는 "저기다!"라는 발견과 함께 그의 출발은 조금도 지연될 수 없는 절실함으로 되어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내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 광속(光速)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면서 몸의 일부분들이 너무 빠른 이동 때문에 부서져나가 하늘 속의 티끌로 되어버리는 과정에서도 불이의 몸에 붙어버린 다른 별의 암석은 끝내 한 몸이 된채 불이의 운명과 함께 하고 있었다.

우주의 성층권(成層圈)에 진입했는지 불이의 빛은 다시 뜨거워졌다. 주위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대기(大氣)를 태우면서 하나의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이 불이의 몸이었다.

그 불덩어리는 사바세계의 한밤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땅 위에 떨어졌다. 땅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 빛의 불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별의 불덩어리가 땅 위에 도착하는 동안 이미 타버린 뒤였고 정작 땅 위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드디어 불이는 다시 한번 인간계에 올 수 있었다.

"아!"

라는 감탄사가 입안에서 흘러나왔다. 그 감탄사는 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울어대는 응애응애와 같은 소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런 불이가 태어난 밤의 땅이 어디인가.

바로 누란의 사막이었다. 누란의 사막 한 복판에 서 있는 볼품 없는 스투파 언덕의 그 곧은 흙으로 된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함두와 만화가 나타난 그곳이 아니던가.

하지만 함두와 만화는 그 일대의 어디에도 자취가 없었다. 그 뿐 아니라 불이가 그곳에 내려온 일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불이는 마치 우주 속의 미아가 되었을 때처럼 허망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였다.

그 느낌은 사람으로 태어난 불이의 새로운 눈으로 그가 내려 온 밤 하늘을 우러러 보게 만들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의 크고 작은 산재(散在)로 차 있었다. 그렇다면 허망하다는 느낌이 아름답다는 느낌에 잇대어진 것으로 되었다.

불이는 방금 인간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굳이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인(成人)이었다. 그의 의식이나 음성도 성인의 그것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본 다음 그가 서 있는 주위의 땅을 둘러보았다.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숫제 모래 뿐이었다.

그는 고독하였다. 존재의 시작이 그런 고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가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는 거창하게 부풀려진 정신상태에서 마치 우주 속의 라프라스 성운(星雲)에서 태양계가 분리될 때의 그 시원의 생명체가 처음으로 이 세상을 알게 될 때의 고독과도 같은 그런 고통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실로 옛날 옛적의 부처조차 태어나기 이전의 그 특수한 순간에 무기물의 복합적인 합성이 유기체를 만들어내고 그 유기체가 핵, 원형질, 세포막 등을 갖춘 한 개의 세포로 되고 그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되어가는 생명의 개체가 된 것이 아니던가.

그 개체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니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치다가 적자(適者)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듯이 차츰 자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되어 그 시력(視力)을 다해서 응시할 따름이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해가 붉근! 사막의 지평선 위로 솟아올라 그 성급함을 중단하고 있었다. 그때 불이는 해돋이를 맞이하던 이제까지의 경건한 방향에서 돌아섰다.

그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떴다. 막 떠오르는 동쪽 태양의 새로운 빛을 받은 스투파 전체가 마구 불타오르는 한 줄기 기둥처럼 찬란하였다.

바로 그 스투파 속에서 마치 화재속에서 뛰어나오는 짐승처럼 두 개의 물체가 나오고 있었다. 그 물체는 스투파 밖으로 나와 한동안 사막의 모든 곳을 돌아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물체는 불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동쪽 지평선은 왼쪽 부분은 모래가 부지런히 물려가서 쌓인 모래언덕 때문에 결코 지평선이라고 할 수 없는 높은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 먼 곳의 모래언덕에 물들여지는 붉은 빛깔은 몹시 아름다웠다.

"태양이시여!"

마침내 지평선 앞대가 갑작스럽게 밝은 빛깔을 펼치면서 한순간 캄캄한 느낌을 주다가 눈부신 햇빛을 들어 올리는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실로 엄떨떨한 동작이었다.

누구 하나 그런 동작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았다. 불이도 오로지 그런 광경을 멀리

아침 해돋이의 찬란한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 함두가 불이에게 낮게 말했다 "아… 어디서 뵌듯 합니다"

우주의 미아가 돼 떠돌던 불이도 누란의 사막 위에 환생

그림 · 조향숙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9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